

# 이화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세계 1위 할 것”

## 우리는 성장기업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  
정밀 톱날·웨이퍼 가공 휠 ...  
항공·車·반도체 분야 3만종 생산

세계 90개국 기업과 거래  
47년 흑자 전통 이어가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 대표(왼쪽)가 오산 본사에서 제품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했고 있다. 이화다이아몬드 제공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모스 경도계(Mohs hardness scale)' 최고 등급인 10등급에 해당한다. 다이아몬드 공구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입자를 다양한 금속 분말과 섞어 금형에 넣은 뒤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든다.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공구의 날을 구성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다이아몬드 공구 전문기업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의 김재희 대표는 “현대 제조업 흐름상 가공이 힘든 난삭재(難削材)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다이아몬드 공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세계 1위 다이아몬드 공구 기업을 일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화다이아몬드는 국내 1위, 세계 4위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기업이다. 제품 종류는 단단한 화강석을 평평한 판재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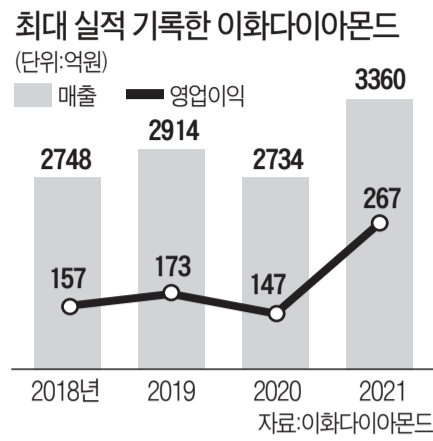
를 때 사용하는 톱날(gang saw)부터 0.01㎍(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후면 가공용 휠까지 3만 종이 넘는다. 광물 시추부터 건설 자동차 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매출 구성은 수출 60%, 내수 40%가량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블랙앤데커, 일본 도요타 등 세계적인 제조기업 대부분이 고객사다. 수출국은 세계 90여 개국에 이른다.

이화다이아몬드는 작년 매출 3360억원에 영업이익 267억원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8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대에서 8%로 뛰어올랐다. 일본과

유럽 경쟁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물류 대란과 공장 잦아들음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동안 이화다이아몬드는 국내 공장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갔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도 매출 증가에 한몫했다.

이화다이아몬드는 김 대표의 부친 김수광 회장이 1975년 설립했다. 이화(화)와 다이(다이아몬드)의 합성어인 이화다이아몬드는 동리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공구 국산화에 성공했다. 1982년 석재 절단용 톱날을 미국에 수출하며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 이화다이아몬드의 공구들은 1995년 서울 광화문 조선총독부 중앙청 철거부터 2003년 청계고가 철거까지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에도 있었다.



이화다이아몬드는 창사 이후 47년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견뎠다. 이화다이아몬드의 사업부 구성이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화다이아몬드는 크게 반도체 등 전자사업부와 자동차 등 정밀가공사업부 그리고 건설·석재사업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부서는 영업부터 연구개발 인력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고객사가 많고 아이템이 다양해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산업이 불황일 때 반도체 등 호황기인 다른 산업이 벌어들여주는 식이다.

김회장의 차녀인 김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출신이다. 2010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연구개발과 설비 증설에 주력해 앞으로 100년 이상 가는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오산=김진원 기자

# 드림텍, 美 의료기기 시장 진출

## 부정맥 진단 업체 인수 실시간 원격진료 장비 공급

스마트폰 센서 제조업체인 드림텍이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 현지 심전도 분석 업체를 인수해 원격진료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영업망을 확보했다. 드림텍은 “미국 카디악인사이트 주식 2300만 주를 2300만달러(약 274억원)에 인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카디악인사이트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이 회사 경영권을 갖게 됐다. 드림텍은 씨아이디티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250억원 규모 제3차 배정 유상증자도 함께 결정했다. 씨아이디티홀딩스는 드림텍 지분 3.45%를 취득할 예정이다. 씨아이디티홀딩스는 카디악인사이트의 최대주주였다.

카디악인사이트는 부정맥 진단에 쓰이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인 ‘카디아솔로’를 개발한 업체다. 2017년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뒤 2019년 공급을 시작했다. 카디아솔로는 패치 1개를 1회 부착하는 것만으로 최대 8일간 실시간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 기존 심전도 검사 방식은 5-7개 패치를 흉부 곳곳에 부착해야 했고 부착 후

24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드림텍은 2019년부터 이 회사와 카디아솔로의 후속 개발을 추진해왔다. 장비는 드림텍이, 분석기술은 카디악인사이트가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드림텍은 자체 의료기기 브랜드인 ‘아이시그널’ 제품군으로 카디아솔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 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엔 건강보험 적용 판정도 받았다. 시장조사기관인 엑스피트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심전도 모니터링 시장 규모는 2020년 67억달러(약 8조7000억원)에서 2026년 90억달러(약 10조84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이번 인수로 드림텍은 부정맥 진단 기술뿐 아니라 미국 영업망과 마케팅 역량도 확보했다. 부정맥 진단 제품을 ‘첫 타자’로 내세워 미국 원격의료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남승을 이 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의료기기 ‘전자코 솔루션’, 인공관절 수술용 센서 등도 개발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그간 자체 추진한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게 됐다”며 “병원용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제품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 주성엔지니어링, 1년 만에 흑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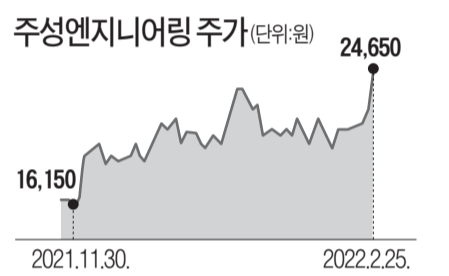
## 지난해 영업이익 1026억 매출은 218% 증가 3773억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주성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773억원, 영업이익 1026억원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218.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반도체 3158억원, 디스플레이 612억원, 태양광 3억원 등으로 실적을 쌓았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신규 고객사 확보 및 고객사의 설비투자 증가와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보통주 1주당 155원의 현금배당에도 나선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73%로 배당금은 총 74억7863만원이다. 또 추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7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1993년 설립된 주성엔지니어링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세계화



에 성공한 기업이다. 누적 특허 건수는 2900개 이상으로, 매년 매출의 15-20%를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고 있다. 임직원 500여 명 중 65% 이상이 R&D 분야에 종사할 만큼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올해부터 고효율 태양광 장비(HJT)를 생산하는 등 신사업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보통주 1주당 155원의 현금배당에도 나선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73%로 배당금은 총 74억7863만원이다. 또 추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7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1993년 설립된 주성엔지니어링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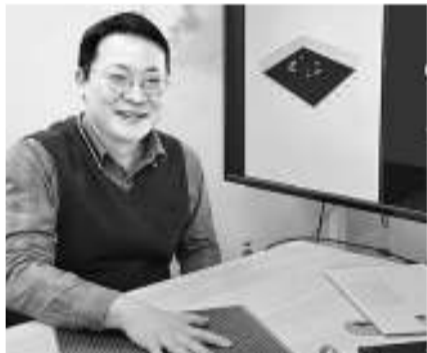
# “2차전자·스마트폰 불량 모두 잡아내죠”

## 아이들의 으뜸기기제품 카이트로닉스

## ‘감압지’로 미세한 압력차 판별 가격 해외 경쟁사의 25% 불과

제조업체가 프레스 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 때 고른 압력전달이 중요하다. 프레스의 작은 기밀이 차이로 완성품 품질이 좌우될 수 있어 보통 제조공정 검사에 선 압력 분포를 검사하는 감압지(산압용 먹지)가 쓰인다. 하지만 아날로그 감압지를 프레스에 넣어 색 변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불량을 판단하는 전통 방식은 오차가 심해 정밀한 공정 관리가 어렵다.

카이트로닉스가 2014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압력분포 측정시스템(전자 감압지)’은 이 같은 프레스 공정에서 불량품을 판별하는 데 쓰이고 있다. 장욱 카이트로닉스 대표(사진)는 “0.5mm 두께의 필름형 압력 센서를 이용해 센서 표면의 수천



개 지점에 가해지는 압력을 동시에 디지털로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전자 감압지에 쓰이는 박형 필름센서, 소프트웨어, 회로 등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전자 감압지 제조사가 있지만 카이트로닉스의 판매가가 4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장 대표의 설명이다.

전자 감압지를 사용하면 압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검사한 결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제조 공정의

불량 판정 결과값을 자동으로 공정의 서버에 입력하도록 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도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장점 때문에 현재 2차전자 제조사의 테스트 공정, 스마트폰 커버글라스 압착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장 대표는 “차량용 2차전자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LG 등 대기업이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있어 전자 감압지 수요도 늘고 있다”며 “해마다 회사 매출이 50%가량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앞으로 압력분포 시스템 활용 범위를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사람이 앉거나 올라서면 건강 상태와 체형 교정의 필요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매트’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 감압지에 쓰인 센서 기술을 활용해 로봇에 촉각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터치 스크린 알고리즘 등을 개발한 전문 연구원 출신이다. 2014년 카이트로닉스를 창업했다. 김동현 기자

## 제테마, 中 보톡스 계약 해지

제테마가 중국 화동닝보와 체결한 보톡스 공급계약(보톡스) 제품 ‘제테마더독스’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해지는 중국 파트너인 화동닝보가 청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화동닝보의 최대주주인 중국 화동제약은 경영권 분쟁 등으로 보톡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최근 관련 사업을 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테마는 중국 시장 진출에 차질이 빚게 됐다. 제테마는 2020년 8월 제테마더독스를 10년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급 규모는 5479억원이었다.

제테마는 다른 중국 현지 업체 2-3곳과 보톡스 공급을 논의 중이었다. 계약 당시 받은 선금급 350만달러(약 42억원)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테마는 2023년 출시를 목표로 2020년 8월 브라질 유통사와도 공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엔 호주·뉴질랜드 지역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이주현 기자

**2만 번의 통찰**

상위 1퍼센트 부자들이 부를 얻는 비밀

이론의 고수와 실전의 고수가 만났다!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투자 상담 1만 회!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경제 강의 1만 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론의 고수와 실전의 고수가 밝히는 부자들의 투자 비밀**

최현만, 한상준 지음 | 값 20,000원 | 한국경제신문